

# 장성군, 250여년 전 그려진 백양사 탱화 '보물' 지정



### 명칭도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로 변경 18세기 후반 '호남지방 불화 대표'로 가치 높아

장성 백양사가 보유 중인 250여년 된 탱화가 '보물'로 승격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됨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도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로 변경됐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후불탱화(법당 내 불단 뒷벽에 걸여놓은 그림)로, 크기는 가로 234.2cm, 세로 338.7cm다. 제작 배경은 복장낭(腹藏囊, 복장품을 넣어 그림에 달아 놓은 주머니)속 발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환월당 민숙이 돌아가신 어머니 봉 씨와 외조모 유 씨의 극락왕

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했다. 제작 시기는 1775년으로, 색민을 비롯해 총 11명의 화승(畫僧, 그림을 그리는 승려)들이 참여했다. 색민의 주요작품으로 꼽히며, 18세기 후반 호남지방의 불화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안정감 있는 구도와 주제를 극대화시키는 짜임새 있는 구성, 섬세한 인물 묘사, 담채 기법을 활용한 부드러운 채색, 따스하고 격조 있는 색감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화승인 의겸의 화풍을 충실하게 승화하고 있다. 앞선 1994년 무렵 도난당했다가 2006년에 극적으로 회수된 바 있다.

이후 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다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잠시 불갑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겼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백양사(성보박물관)에 보관할 계획"이라면서 "문화재 보관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갖춰, 빈틈없이 보존·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으로, 장성군은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백양사 소요대사탑, 필암서원 문적 일괄 총 4점의 국가지정 보물을 보유하게 됐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화순군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4월 20일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아직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 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10만 원의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화순군, 주말도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높이기

화순군이 75세 이상 주민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말에도 예방접종센터(이용대체육관)를 운영했다.

화순군은 애초 월·금요일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했지만,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접종을 진행했다. 향후 백신 공급량에 따라 주말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읍·면과 예방접종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접종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선다

### 죽순 무단 채취 단속 '죽순지킴이' 6월까지 운영



담양군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아시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

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역대 최고치 경신

### 1/4분기 판매액 500억원 규모...올해 1000억원 판매 목표 순항

나주시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4분기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26일 기준)까지 판매된 상품권 판매 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첫 상품권 발행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했던 836억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역대 최고치 판매액 수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난 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등 200억원 규모의 상품권 시중 유통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판매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시는 연간 상품권 10%할인판매 제도 유지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힘을 쏟는 한편, 시청,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공서 임직원들의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월 70만원 한도 내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상품권은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나주시지역 지정 가맹점 310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을 보완해 지난 해 9월 출시한 카드상품권도 전용 앱(CHAK)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지역농협 38개소와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도 철저을 기한다.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갤러리107,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 급변하는 여성의 삶과 내면 포착한 서양화 25여점 전시

곡성군이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서양화가 진희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결혼을 계기로 급변하는 여성의 삶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몸부림을 표현한 25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 진희는 곡성군 일명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7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진희는 "우리 고장에 생긴 갤러리 107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각자의 감성으로 다양하게 감상하시면서 작품의 의미가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갤러리 107은 곡성읍 중앙로 107-1에 위치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